

축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 정연스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동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의
총립대학 동국대학교를 글로벌 인재
교육기관으로 웅비시킬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하겠다는**

건학이념을 실천하며 지난 100여 년간 국가와 민족,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동량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지난 100년은 한국불교사의 자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경제 전쟁의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창조적 지식을 생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 각 대학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역시 이러한 경쟁을 넘어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김희옥 신임 총장님을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리더로 모시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지난 1968년 본교에 수석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어 사회에 봉직한 후 모교에 돌아와

후배를 가르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교에서 후배들의 학문 연마를 책임지는 자리로 돌아오셨으니 그 말씀을 잘 지키신 것입니다.

김희옥 총장님께서서는 학교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시며 '제2의 건학을 통한 동국대 중흥을 이루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의 대학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히셨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남다른
비전과 리더십을 갖추시고 친화력과
추진력을 겸비하셨기에 앞으로 동국
대학교를 글로벌 인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흔히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학이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수행
정진하는 불가의 도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동국대학교는 재단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동문들이**

**불퇴전의 노력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교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량,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연구 성과,
그리고 모든 생명이 상생하도록 만드는
지혜의 연꽃들이 피어날 때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은 바르게 구현될 것입니다.**

**김희옥 총장님께서서는 항상 집무실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라는 경구를 걸어두셨다고 합니다.
임제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길, 모든 곳이 진리의
자리가 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이곳 동국대에서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동국대학교의 앞날에 부처님의 한량
없는 지혜광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